

13 세기 베트남 王族의 高麗 歸化와 그 후손

Shin Yong-ha,
Seoul University

一. 머리말

필자의 스승 李相佰 교수님의 타계 10주기에 선생님의 저작집을 간행하기로 결정되었고, 필자가 편집을 맡게 되었다.

그 때 이상백 선생님의 유고를 정리하다가, 특이한 내용의 未發表 原稿를 발견하였다. 그 원고가 「花山 李氏의 선조 李龍祥에 대하여 - 安南王弟의 高麗歸化 -」로서, 『李相佰著作集』 제3권에 수록하였다.¹

李相佰 선생님의 사용한 자료는 직접 수집하신 『瓮津府邑誌』와 『花山李氏家譜』이다. 이 자료에 베트남의 李(Ly)왕조(1010 A.D.~1226 A.D.)의 제5대왕 李天祚의 둘째 아들이며, 제6대왕 李龍翰의 아우이고 마지막 제7대왕 李昊岳의 숙부인 李龍祥이 1226년 베트남의 李(Ly)왕조가 망하고 陳(Tran)왕조로 교체되자 高麗로 亡命하여 花山 李氏의 始祖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특이한 사실은 『高麗史』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상백 선생님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추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후손들의 기록이 『朝鮮王朝實錄』에는 나오고 있으며, 위의 두 자료가 참고했다는 『高麗名臣傳』과 『歡德京邊胤宗集』이 지금은 전해지지 않으나 당시는 전해진 자료이므로, 이상백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설명이 모두 사실로 생각되어 여기서 이를 소개하려고 한다.

¹ 李相佰, 『李相佰著作集』 제3권, 을유문화사, 1978, pp.651~661 참조.

二. 李龍祥의 망명과 高麗 歸化

베트남의 李(Ly)왕조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1010년 李公蘊(Lý Công Uân)에 의해 수립된 왕조로서 216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된 왕조였다. 李왕조는 북방으로부터의 宋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내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업적을 들면, 국호를 “大越”(Dai Viet)로 정하고 독립을 강화했으며, 1010년 탁롱(Thag Long)을 수도로 정하여 크게 건설했는데 그것이 오늘의 하노이(Hanoi)이고, 불교를 장려하면서 행정개혁, 조세개혁 등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단행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1075년 科擧제도를 시작하여 인재를 발탁하고, 1076년에는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대학인 國子監(Van Mieu)을 세워 교육을 발전시켰다. 유명한 一柱寺 (Chua Mot Cot)는 제2대왕(Ly Thai Ton, 1028~1054) 때 건립된 것이다.

李왕조의 제6대왕 李龍翰(1211~1224)은 陳(Tran)씨 왕후를 맞이했는데, 병약한 채 딸만 둘 낳고 1224년 별세하였다. 척족(왕후의 오빠)인 Tran Thu Do(陳日照)는 미혼의 7세인 둘째 딸 李昊昆에게 왕위를 승계시켜 女王으로 삼고 2년 후에 자기의 조카인 8세의 Tran Cahu와 결혼시켜 왕위를 Tran(陳)에게 넘겨주게 함으로써 李왕조는 중언을 고하고 陳왕조가 1226년에 시작되었다.

척족 陳씨는 이러한 정변 도중에 여러 왕족을 희생시켰다.

제6대왕 李龍翰의 아우인 李龍祥(Ly Long Thuong)은 1226년 척족 陳씨의 정변을 피해 배편으로 바다를 건너 高麗로 망명하였다.

李龍祥이 도착한 곳은 황해도 용진군 富良江의 花山浦였다. 당시 瓮津은 매우 중요한 軍港으로서 조선왕조 太祖가 軍鎭을 설치하고, 숙종 때에는 都護府로 승격시켜 黃海道水 軍節度使가 瓮津都護府使를 겸직케 할 만큼 해안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요새였다.²

고려의 국왕 高宗은 李龍祥을 외국 王族으로 따뜻하게 대우하여 토지와 가옥을 주고 정착케 하였다. 이용상은 용진府의 鎭山 남쪽에 정착했는데, 마을 이름은 “微子洞”이라고 불리었다. 미자동은 옛 중국의 殷나라 왕자 微子가 周에게 나라를 잃고 먼 나라로 피란가 살았는데,

² 『新增東國輿地勝覽』 黃海道 瓮津縣條 참조.

이용상이 고려에 피란와서 살게 된 것을 비유하여 자기 호를 小徽子라고 했으므로 이에 붙여진 이름이었다.³

三. 李龍祥의 抗蒙戰 참전과 花山君 受封

이용상이 고려에 귀화한 27년 후인 1253년(고려 高宗 40년 癸丑) 야굴(也屈)이 이끄는 몽골군의 제4차 대침략이 있었다. 몽골군은 고려의 수도 開城을 점령했고, 고려 국왕 高宗은 이미 江華島에 피란해 있었다.

몽골군은 한 부대를 나누어 개성의 서북쪽 요새인 瓮津을 공격케 하였다. 군세가 매우 급박하여 웅진성 함락이 조석에 걸리게 되었다.

이용상은 귀화인임에도 불구하고 분격하여 일어나서 고려군의 抗蒙戰에 참가하였다. 이용상은 웅진부사로부터 군사를 나누어 받아 鎭山 한 방면을 맡아서 몽골군을 공략하며 분전하였다. 이로 보면 이용상은 베트남 본국에 있을 때 왕족이면서 武將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상은 5개월간을 몽골군과 분투하며 교전하였다. 결국 패전하게 된 몽골군은 피를 내어 항복하고 싶다고 선언하고 金을 담은 5개 함을 바치겠다고 실어 보냈다. 이용상은 몽골군의 간교한 피를 알아차리고, 5개 금이 들어 있다는 함을 받자, 즉시 함에 구멍을 내어 끓인 물을 들어붓게 하였다. 함 안에 들어가 있던 5명 자객은 모두 무기를 안은 채 죽고 말았다. 이용상은 함에 뚫은 그 구멍을 막아 금박으로 칠해 발라서 돌려보냈다. 몽골 군사들은 이를 받고 크게 놀라서, 몽골군은 항복을 하고 그날로 군사를 거두어 퇴각해 도주하였다.

고려 국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감탄하여 鎭山을 花山으로 호칭하도록 하고, 이용상을 花山君에 封하였다.⁴ 그리고 고려국왕은 花山君 이용상에게 지방 30리와 인구 20호를 食邑으로 하사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本營館(花山館) 밖에 三門을 세우고 이름을 “受降門”이라고 하였다.⁵

³ 『節義錄』; 李相佰, 전계논문 참조.

⁴ 『新增東國輿地勝覽』 黃海道瓮津縣條 山川에서는 「花山은 고을 동쪽 2리에 있는 鎭山이다」라고 하였다.

⁵ 「受降門紀蹟碑」, 李相佰, 전계논문 참조.

이용상은 花山君으로 봉해져서 고려 왕국의 귀족이 되었으나 고국인 베트남을 평생 그리워하였다. 이용상은 花山の 정상에 “望國壇”이라는 제단을 만들었다.⁶

花山은 높은 산은 아니지만 봉우리가 둥글고 오르기 쉬운 산으로서, 정상에는 약 30여명이 앉을 만한 평지가 있는데 이것이 “望國壇”의 유허였다. 이 봉우리는 굴곡이 많은 서해 해안선과 창린도 . 이화도 등 섬들과 함께 서해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조망대였다. 이용상은 花山望國壇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올라 멀리 서남쪽 바다를 바라다보며 떠나온 고국 베트남을 그리워했던 것 같다.

花山 기슭에 연결된 건너편에 더 큰 산인 廣大山이 있는데, 이 산에는 “越聲岩”이라는 큰 바위가 있다. 이 큰 바위는 이용상이 때때로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고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 말로 통곡하고 울부짖으면서 서 있던 곳이어서 “越聲岩”(베트남 소리 바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⁷

이용상은 이렇게 하여 고려에서 花山 李氏의 始祖가 된 것이다.

四. 이용상의 後孫

이용상의 후손은 고려왕조에서는 번창하였다. 이상백 선생님이 족보에서 골라 정리한 것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⁸

- 1) 李幹藝 : 이용상의 아들, 藝文館 大提學
- 2) 李玄亮 : 禮曹參議
- 3) 李龍進 : 監修國史
- 4) 李 裕 : 尙書右僕射
- 5) 李孟藝 : 戶曹典書, 朝鮮朝에서는 屢微不起
- 6) 李大從 : 碧潼郡守
- 7) 李周孫 : 校理
- 8) 李壽福 : 承旨, 四府三郡長을 거침

⁶ 『瓮津府邑誌』山川形勝條; 李相佰, 전계논문 참조.

⁷ 『瓮津府邑誌』忠節條; 李相佰, 전계논문 참조.

⁸ 『花山君家譜』; 李相佰, 전계논문 참조.

- 9) 李業：壬辰扈從功臣, 贈判尹
- 10) 李應白：進士
- 11) 李鼎鑑：成均館博士
- 12) 李憲國：進士
- 13) 李義之：進士
- 14) 李景行：進士
- 15) 李言禹：進士
- 16) 李萬泳：進士

위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이용상의 후손들은 편의상 관직을 지표로 할 때 ① 高麗왕조에서는 귀화인으로서는 매우 높은 관직을 역임하였고 ② 朝鮮왕조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강했으나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郡守급 관직에 진출했으며 ③ 임진왜란 이후에는 관직에서 아주 멀어져 進士급으로서 향반 또는 평민으로서 생활한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왕족이고 고려의 귀족으로서 출범한 이용상의 후손 花山 李氏가 고려왕조에서는 크게 떨쳤다가 조선왕조에서 점점 한미하게 된 것은 화산 이씨 제6대 李孟藝의 낙향과 관계가 있다.

李孟藝는 호가 川隱 또는 鰲泉散人으로서 이용상의 6세손이었다. 성품이 어질고 맑으며, 어릴 때부터 儒學을 공부하여 忠孝의 정신이 강하였다. 유학이 매우 뛰어나서 牧隱 李穡, 圃隱 鄭夢周, 冶隱 吉再 등과 함께 十隱의 하나로 꼽히었다.

이맹예는 忠宣王 때와 恭愍王 때에 戶曹典書와 贊成의 벼슬에 올랐는데 왕에게 崇儒斥佛할 것을 힘써 諫했다가 해임 당하였다. 향리로 돌아와 蘇文倉 圓通山 아래서 8년간 살았는데, 부모를 지극한 효도로 모시어 시골 사람들이 그 동리를 “孝子里”라고 불렀다.

고려왕조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성립되자 太祖 李成桂는 이맹예를 漢城判尹에 임명코자 했으나 응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君子不事二君(君子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의 유교적 이념 원칙을 지키려 한 것이었다. 이태조는 “孝子里”라는 3자를 써서 내려 보내주었다.

이맹예는 자기 마을 입구에다 “孝子里”라는 태조의 어필을 새긴 비석을 세우고, 『高麗小史』라는 책을 저술하여 집에 보관하였다.⁹

이맹예가 고려왕조의 충신으로서, 조선왕조에서 태조 이성계의 후대에도 응하지 않고 고향 시골에서 은거한 결과, 그 후손들의 관직 진출에는 약간의 한계를 설정하게 되었다. 웅진이 원래 해안 방비의 요새로서 「土無經學 武習射砲 居野之民 務耕農 居浦之民 務漁鹽」(선비는 經學을 공부하지 않고 武科로 가려고 활과 총 쏘는 것을 익히고, 들에 사는 백성은 농사에 힘쓰고 나루에 사는 백성은 고기잡이에 힘쓴다)이라고 한 바와 같이 文보다 武의 분위기가 충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여건에서도 이용상의 후손 가운데는 임진왜란 이전까지에는 문관과 무관이 자력으로 다수 나왔다.

珍原 현감, 벽동 군수를 지낸 李大從은 강직한 관리였다.¹¹

監察과 校理를 지낸 李周孫은 관대한 성품의 관리였다.¹²

草溪 군수, 承政院 승지, 掌樂院正을 지낸 李壽福은 정적도 많았지만 학문이 높은 뛰어난 문관이였다.¹³

예컨대 이수복은 장악원 正으로 있을 때 세종 때의 『東國正韻』을 강의할 것을 상소 제의하면서 은근히 訓民正音의 부활을 시도하였다.

「상이 조강에 나아가고 이어 운대(輪對)에 나아갔다. 장악원 정(掌樂院正) 이수복(李壽福)이 아뢰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문헌의 나라로 일컬어졌으며 경술(經術)과 사장(詞章)이 진실로 불만한 것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경학(經學)을 공부하는 자가 스승에게 전수받는 일이 별로 없으므로 단지

⁹ 『金氏輯錄』 『海州誌』 『節義錄』 『花山李氏世譜』; 李相佰, 전계논문 참조.

¹⁰ 『瓮津府邑誌』 風俗條; 李相佰, 전계논문 참조.

¹¹ 『太宗實錄』, 태종 14년(1414) 12월 22일(辛卯)조; 『太宗實錄』, 태종 15년(1415) 2월 3일(辛未)조; 『世宗實錄』, 세종 13년(1431) 1월 2일(丁卯)조; 『世宗實錄』, 세종 16년(1434) 5월 4일(庚辰)조 참조.

¹² 『成宗實錄』, 성종 15년(1484) 5월 28일(甲寅)조; 6월 5일(庚申)조 및 6월 21일(丙子)조 참조.

¹³ 『中宗實錄』, 중종 33년(1538) 11월 6일(丙子)조; 1월 28일(戊戌)조; 중종 34년(1539) 1월 3일(壬申)조; 1월 10일(己卯)조; 1월 19일(戊子)조; 1월 20일(己丑)조 및 3월 13일(辛巳)조 참조.

대의(大義)만 어긋날 뿐 아니라 글자의 음까지도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삼가 보건대 세종조에서 이런 풍습을 근심하여 신숙주(申叔舟)에게 명하여 『동국정운(東國正韻)』을 만들어서 영원한 법으로 삼으셨는데, 이를 폐지하고 강(講)하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바라건대 경연에서나 관학(館學)에서 한결같이 『동국정운』에 의해 읽게 한다면 아래로 산간벽촌에 이르기까지 널리 전파되어 자운(字韻)의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¹⁴

또한 이수복은 倫理 교육 강화를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상이 조강에 나아가고 이어서 윤대(輪對)에 나아갔다. 장악원정(掌樂院正) 이수복(李壽福)이 아뢰었다.

“삼대(三代)1350) 의 학문은 모두 인륜(人倫)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관학(館學)과 향촌(鄉村)의 아이들에게 효도와 우애를 가르쳐 모두 봉양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하여 습속(習俗)이 되게 한다면, 고집스럽고 모질어 따르지 않던 무리들도 교화될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인륜을 두텁게 하는 일을 마치 옛날 독법(讀法)과 같이 대략 교육 조목으로 만들어 본받아 생각하게 한다면 착한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해조를 시켜 마련하게 하여 효도와 공손하는 풍속을 돈독하게 하소서.”¹⁵

이로써 보면 李壽福은 世宗朝의 정책을 계승하여 정확한 漢字音 읽기 및 訓民正音 부활 보급정책과 『三綱行實圖』, 『五倫行實圖』 간행에서 증명되는 倫理교육 강화정책을 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¹⁴ 『明宗實錄』, 명종 6년(1551) 3월 21일(己酉)조, 「上御朝講, 仍御輪對. 掌樂院正 李壽福曰: “吾東方, 古稱文獻之邦, 經術, 詞章, 誠有可觀者. 頃年以來, 業經學者, 鮮有師授, 故不獨大義乖舛, 至於字音, 亦多承訛襲謬, 誠非細故. 伏見 世宗 朝, 軫念此習, 命 申叔舟, 作 《東方正韻》, 以爲永世之法, 廢而不講久矣. 請於經筵之上, 館學之中, 一依 《正韻》讀之, 則下至窮鄉僻村, 可以廣傳, 而不患字韻之謬矣.”」

¹⁵ 『明宗實錄』, 명종 8년(1553) 5월 11일(丙辰)조, 「上御朝講, 仍御輪對. 掌樂院正 李壽福啓曰: “三代之學, 皆所以明人倫也. 今須於館學之中. 村巷之童, 教以孝悌, 皆知養父母愛兄弟之爲美, 習俗已成, 則頑嚚不率之輩, 亦有可化之理矣. 臣意以爲, 以厚倫之事, 略作教條, 如古讀法, 使之體念, 則善心油然而生矣. 請令該曹磨鍊, 以教孝悌之風.”」

임진왜란 때 宣祖를 호종했던 호종공신 李業은 문관들의 시기를 받으면서도 국왕에게 충성을 바친 충직한 무관이었다.¹⁶

임진왜란 이후에는 호종공신 李業이 역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으나 후에 역모를 꾀했다고 누명을 쓰고 처벌당한 金德齡 일파로 몰려 정적들로부터 탄압을 받은 여파인지, 자손들이 進士까지만 나가고 중앙관아의 벼슬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五. 맺음말

이용상의 후손인 花山 李氏들은 황해도 瓮津반도 일대에 世居했는데, 1945년 8 . 15 광복 후 38도선 남북분단으로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 瓮津반도는 38도선 이남에 속했으나 육로가 단절되어 해로로 연결로 되었고, 남 . 북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1950년 6 . 25 한국전쟁과 휴전 때에는 瓮津반도는 휴전선 이북의 북한에 속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花山 李氏들도 남 . 북으로 많이 흩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200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花山 李氏는 대한민국에 577가구, 1,775명이 거주하고 있다. 瓮津군 花山이 花山 李氏의 관향이고 이곳이 현재는 북한에 속해 있으므로, 북한 관향에도 남한과 거의 같은 가구수의 花山 李氏가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의 왕족 李龍祥이 1226년 高麗에 귀화하여 약 780여 년간에 다수의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후손이 크게 번창한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¹⁶ 『宣祖實錄』, 선조 29년(1596) 8월 4일(己亥)조 참조.